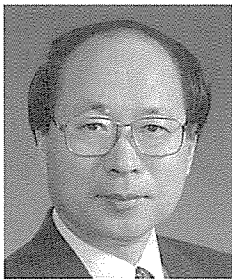


흡연현황(세계와 한국)

세계 흡연인구 총 11억, 연 6조개비 태워 개도국 여성·청소년 흡연을 크게 증가



李光榮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전북대 초빙교수)

콜럼버스 미 대륙발견 후 알려져

담배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에 알려졌다. 담배가 유럽에서 선을 보인 것은 1556년 프랑스 여행가 앙드레 테베가 브라질로부터 담배 씨를 가져와 파리 근교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테베의 친구인 외교관이자 탐험가이며 기업가인 니코가 프랑스와 유럽의 할 일 없는 귀족들의 소일거리로 흡연법을 소개하면서였다. 담배는 당시 교양있는 유럽사람 사이에 지위와 신분의 상징으로 비춰져 급격히 전파되었는데 엘리트들은 흡연이 생각을 도와주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흡연을 하게 되었고 담배를 한 손에 쥐면 마치 노숙하고 인생을 이는 것처럼 여겼다.

담배는 돈 있는 사람들에서 점차 일반인으로 보급되며 시장을 넓혀갔다. 담배시장이 커지자 대기업이 이에 뛰어들었고 이들 기업이 판촉전을 벌이며 세계로 급격히 번져갔다. 우리나라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전파되었고 장유(張維: 1589~1638년)가 처음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약 초로 알려져 20년 만에 흡연인구가 1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세계 흡연인구가 11억명에 달해 세계 인구 6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는 것으로 2001년 통계에서 밝히고 있다. 흡연인구의 47%는 남자이고 12%는 여자이다. 11억명이 연간 피우는 담배는 켈런만 연간 6조개비. WHO는 담배로 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매년 4백만명에 이르며 오늘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엔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세계 전체 사망자의 8명중 1명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다. WHO는 또한 현재 담배로 해서 생명을 잃는 4백만명중 3백만명이 선진국, 1백만명이 개발도상국에서 나오고 있으나 2020년이 되면 이것이 역전되어 70% 정도가 개발도상국

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흡연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20년경엔 연간 5백만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의 남자 흡연율이 68.2%로 미국(28.1%), 영국(28.0%), 독일(36.8%) 등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며 여자는 6.7%로 미국(23.5%), 독일(21.5%), 일본(14.8%)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여자 흡연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담배 흡연율의 유형과 국가를 대비한 로페즈는 세계를 크게 4단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흡연율이 남성은 20% 이하, 여성은 매우 낮은 그룹이다. 사하라사막 아래쪽 아프리카 주변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나라들은 아직 담배가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되지 않았으나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담배확대전략으로 빠르게 흡연인구가 늘어날 상황이다. 이미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담배 재배면적이 1970년 이후 10배나 증가했고 담배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2단계는 흡연율이 남자가 50% 이상에 이르며 여자 흡연율도 오래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남자 폐암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 북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나라들은 담배 규제활동이 느슨하며 담배의 건강위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담배 규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수준도 매우 낮다.

3단계는 흡연율이 남자에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여자에서도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담배를 애용해온 역사가 오래된 그룹이다. 담배를 20~30년 정도 피운 사람들

에게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유럽 중부와 남부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단계에 속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사망자의 10~30%가 흡연관련 질병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흡연에 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 가는 등 금연운동을 펴고 있으며 모든 매체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금연운동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4단계는 흡연율이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룹이다. 이에 속하는 나라들은 흡연에 의한 사망률이 남자의 경우 30~35%(이중 중년 사망률은 40~45%)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여자의 흡연관련 사망률은 모든 사망의 20~25%를 유지하고 있다. 북서부 유럽 국가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에 속한다.

한국 흡연을 세계 최 상위권에 속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특히 20, 30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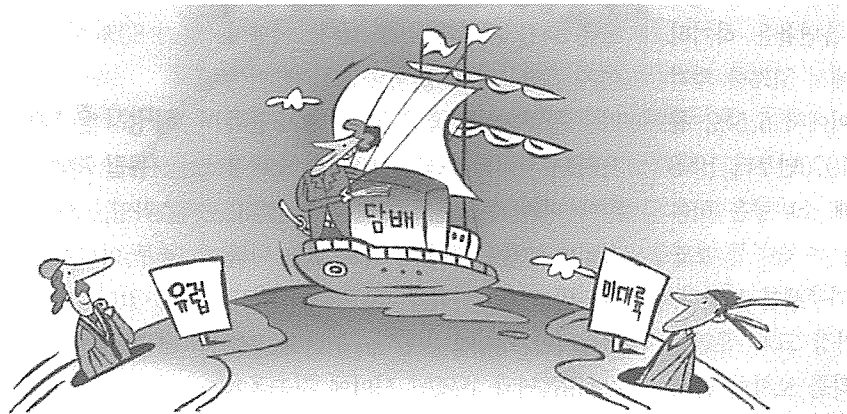
과 제도적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조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 각 지역별 흡연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지역〉 흡연율은 낮은 편이다. 남자가 주로 흡연을 하고 있다. 여자 흡연율은 남아프리카가 가장 높아 11%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코트부아, 짐바브웨가 2% 정도이다. 남자의

흡연율은 나이지리아, 르완다가 20% 이하, 차드, 가나, 말라위, 스와질랜드 20~29%, 잠비아, 짐바브웨, 세이첼레스, 레소토, 세네갈 30~39%, 코트부아,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알제리, 마우리티우스 40~49%, 기니아, 우간다 50~59%, 나미비아, 케냐는 60% 이상이다.

담배회사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거대한 잠재성을 가진 처녀지로 여기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의 거의 50%가 15세 미만으로 이들은 청량음료로부터 블루진까지 유행에 민감한 세대로 약 7백만명의 잠재적 담배 소비자라고 보고 있다. WHO는 아프리카를 담배 유행을 막는 '마지막 미개척지'로 보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율은 70~75%에 육박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에 의뢰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이다. 지교수의 '한국인 금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40대 이후의 흡연율은 1990년대 들어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20, 30대의 흡연율은 담배값에 기재된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나 매스컴에서 담배의 해독(害毒)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에 덧붙여 각종 법

〈아메리카 지역〉 대부분의 아메리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담배는 필터가 붙은 쥘련이다. 그러나 콜롬비아에서는 토착민, 주로 여자들이 아직도 담배불을 붙인 끝을 입 안에 넣고 거꾸로 피우고 있다. 쿠바에서는 1989년에 남자의 15%가 시거를 피웠다. 1992년까지 파나마에서 소비되는 담배 중 28%가 손수 말아 피우는 담배였고 파라과이에서는 코담배나 씹는 담배가 전체 담배 소비량의 5~10%를 차지했다. 1988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이 지역 성인들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에서는 성인 흡연율이 바바도스 9%, 페루 40.9%이었다. 남자 흡연율은 하이티가 10.7%, 니카라과에서 51%를 차지했다. 여자는 파라과이에서 5.5%, 칠레가 35.5%이었다. 1970년부터 1998년 사이의 1인당 담배 소비량은 하이티와 에콰도르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15개 나라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쿠바와 자마이카가 가장 크게 흡연율이 감소했고 이들 나라를 포함한 11개 나라에서 담배 소비율이 감소했다. 남자 흡연율은 하이티, 바하마가 20% 이하이고 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칠레, 파라과이,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20~29%,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0~39%,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 쿠바 40~49%, 파나마, 니카라과, 멕시코가 50~59%이다.

〈동부 지중해 지역〉 동부 지중해에 속한 22개국에 이에 속한다.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 국가들과 몇몇 아

시아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인구 규모와 생활수준, 사회 규범 등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담배 규제활동도 나라마다 특이하다. 성인 흡연율은 튀니지가 6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예멘(60%)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남자 흡연율을 가진 나라는 오만으로 13.2%이다. 일반적으로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의 여성 흡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예멘이 여자 흡연율이 가장 높아 29%에 이른다. 동부지역 국가들은 1970년과 1988년 사이의 1인당 제조담배 소비경향에 따라 두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그룹은 변동이 별로 없는 나라들인데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속한다. 두번째 그룹은 1970년과 1995년 사이에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가 하락을 보인 나라들이다. 1인당 담배소비량에서 증가한 나라는 이집트, 시리아, 아랍공화국 등이고 하락한 나라는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이다. 담배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은 국가적 위기 시기와 이 지역 전역에 TV·신문·잡지 등 매체가 크게 보급되었을 때와 같이한다. 남자 흡연율은 오만이 20% 이하이고 수단, 이란,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바레인 20~29%, 모로코, 파키스탄, 사이프러스, 쿠웨이트 30~39%,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가자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40~49%, 시리아 아랍 공화국 50~59%, 튀니시아, 예멘, 드지부티가 60% 이상이다.

사망자 중 14% 담배 관련 질병 원인

〈유럽 지역〉 WHO의 유럽지역은 이스라엘, 유럽쪽 구 소련 소속 국가와 중부 아시아를 포함한 51개 나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담배관련 질병으로 해서 1백20만여명(전체 사망자의 14%)이 죽어가고 있어 금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영국과 노르딕 국가들에서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부 아시아공화국들을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자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WHO는 강력한 담배 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2020년까지 매년 2백만명 이상이 사망(전체 사망자의 20%)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부 유럽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년기(35~64세)의 조기 사망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중·동부 유럽 국가

에서 15세 어린이가 6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서유럽 국가보다 2배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담배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중·동부 유럽에서의 담배관련 사망자는 연간 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나라가 많고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배 소비형태도 다양하다. 5분의 2 국가들에서는 남·여 모두에서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동부지역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5분의 3 국가에서는 흡연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성인 흡연율은 35% 정도이다. 이 지역의 동부에서는 성인의 44%, 서부에서는 30%가 흡연자이다.

남자 흡연율은 스웨덴이 20% 이하이고 핀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티크메니스탄, 산마리노 20~29%,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태리, 덴마크, 포르투갈, 말타,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슬로베니아 30~39%,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그리스 40~49%, 러시아연방과 키르기스스탄이 60% 이상이다.

여자 흡연율은 덴마크, 그리스,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30%선에 이른다. 알바니아 베라투스, 중부아시아 공화국들의 대부분에서는 10% 이하를 보이고 있다. 구 소련을 포함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남자 흡연율이 높고 여자 흡연율은 낮으

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폴란드는 담배규제를 잘해 여성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스웨덴,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국가는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이 거의 같다.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중부유럽 국가들은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의 차이가 점점 줄고 있다. 독일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이 크게 늘고 있다.

담배는 여성해방, 독립, 성공의 상징으로 알려져 산업국가에서 여자의 흡연인구가 늘어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여자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리투아니아에서는 10%도 안 되는 여자만이 흡연을 했으나 최근 들어 여자 흡연자가 배로 늘어났다. 여자의 흡연율 증가는 남자의 흡연율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담배규제조치에 힘입어 괄목할 정도로 흡연율이 떨어졌다. 프랑스도 담배규제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흡연율을 떨어뜨렸다. 폴란드는 최근 활발한 금연활동을 펴 흡연자가 많이 줄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WHO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드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타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며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담배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광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워지고 있다. 흡연율은 남자 성인의 경우 네팔이 20% 이하, 타이 30~39%, 방글라데시, 북한, 인디아,

스리랑카 40~49%,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60% 이상이다. 남자 흡연율은 네팔이 20% 이하로 가장 낮고 다음이 타이 30~39%, 방글라데시, 북한, 인디아, 스리랑카 40~49%,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60% 이상이다.

〈서태평양 지역〉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군도로 구성된 31개국이에 속해 있다. 15세 이상 인구가 13억6백만명에 이르며 이중 4억3천6백만명이 흡연인구(남자 4억1백만, 여자 3천5백만)로 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의 담배소비량은 1992년에 비해 1997년 7.8% 증가했다. 전체 양에서 중국이 전 세계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궤련시장이다. 1인당 소비에서 일본이 연간 2천2백70개비를 피워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 한국은 1인당 담배소비가 연간 2천2백68개비로 세계에서 다섯번째이다. 베트남에서는 전체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타이완·베트남·한국·말레이시아는 남자의 흡연율은 높고 여자의 흡연율은 낮다. 남자의 흡연율은 50~80%에 달하지만 여자의 흡연율은 대단히 낮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최근 여자의 흡연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인 남자 흡연율은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피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20~29%, 쿡아일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40~49%, 타이완, 일본, 몽고리아, 사모아 50~59%, 캄보디아, 중국,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통가, 베트남이 60% 이상이다.